

유럽, 화학산업 미래 밝다!

세계경제 회복에 무역호전 영향 ... 환율은 불확실 요소

유럽 화학산업의 전망이 불안정한 환율 등에도 불구하고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화학공업연맹(CEFIC)은 2004년과 2005년의 EU 화학산업 생산전망을 발표했는데, 의약품은 제외한 화학산업의 2004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2%, 2005년에는 2.7%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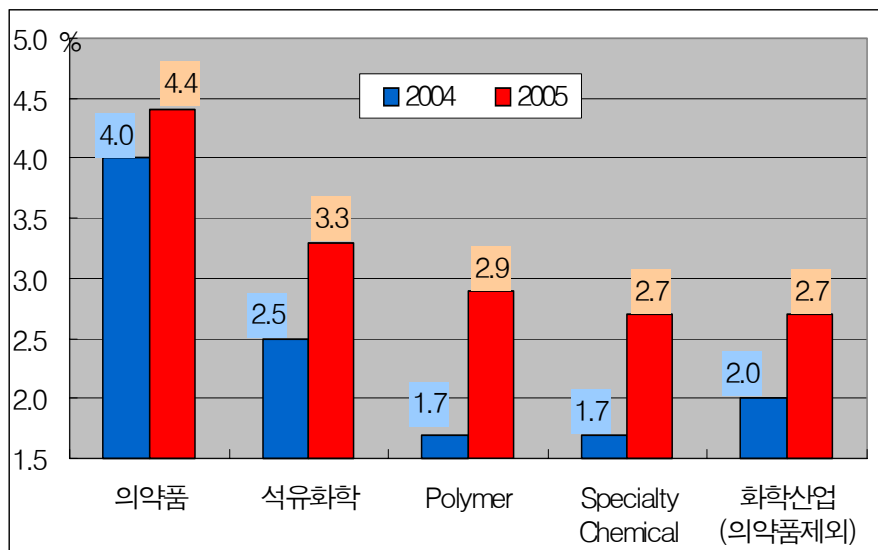
CEFIC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세계무역 호전 등을 배경으로 성장을 예상했으나 환율시세는 앞으로도 불안정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FIC은 의약품은 제외한 2003년 화학산업 생산량이 전년대비 0.6% 밖에 증가하기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해>로 정했다. 화학산업 생산량은 2003년 1/4분기에 호전됐으나 미국-이라크 전쟁의 영향 등으로 이후 급감했다.

의약품은 제외한 2004년 화학제품 생산은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EFIC은 세계경제의 회복, 중동정세 안정화, 세계무역의 호전을 배경으로 세계 GDP가 3.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미 경제가 유럽경제에 호재로 작용해 EU의 GDP가 2.1% 성장하는 것이 화학제품 생산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화학산업의 생산증가율 전망



2005년에는 화학제품 생산량(의약품 제외)이 더욱 증가해 전년대비 2.7% 신장될 전망이다. 주요 분야의 생산량이 전년실적을 웃돌고 특히 Polymer와 Fine Speciality가 고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학저널 2004/08/09>